

**MBL는 청소년 동성애자
왜곡보도
즉각 사과 방송하라!**

**동성애자들을
AIDS 고위험군으로
공격하지 말라!**

**성소수자들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목차

'HIV/AIDS
고위험군
남성동성애자'들이
처한
'위험'의 본질

4, 5면

2005
퀴어퍼레이드

여름동성애자
인권캠프 후기

6, 7면

동성애자
가족의 유형 및
의미

8면

Education For All! 8월 토론회

:: 사전행사 15:00 - 15:40 다큐멘터리 '이반검열' 상영 < 간단한 영화소개 >

- >> 2005년 9회 인권영화제 사전제작지원작품 (2005, 이영)
- >> 줄거리 :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이반검열!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부당함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증언을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다.

:: 본 토론 15:50 - 17:50

- >> 발제 _ 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회원
- >> 토론 _ 권오범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이수나로 활동가)
홍의표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여기동 (정신과 간호사, 前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장소 : 연세대 공대 A012

일시 : 2005. 8. 27 15:00 - 18:00

주최 : 동성애자인권연대

문의 : Tel _ 02_778_9982 / Fax _ 02_775_9983

E_mail _ lgbtpride@empal.com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MBC의 청소년 동성애자 혐오 보도, 이제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행동할 때이다

이경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지난 7월 13일 방영된 MBC <뉴스투데이>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을 '10대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왜곡하고, 동성애자를 혐오와 금기의 대상으로 보도했다. 뉴스투데이의 보도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극심한 억압 속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악랄하게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4분짜리 방송일 뿐이다? 언론의 보도는 굉장한 과급력을 지닌다. 특히나 MBC 같은 공중파 TV는 더더욱 그렇다.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의 허울을 뒤집어 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리에서 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간 한 여학생은 부모로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그가 실제로 레즈비언이었던 아니던 간에, 이 사회에서 성적체성을 추궁 받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공격했다. 이들의 외모, 특징 등을 근거 없이 일반화시키고 마치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조직처럼 '이반 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가시적인 표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요즘 여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검열'이 행해지는 현실과 정확히 겹쳐진다. 방송은 마치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색출하여 뿌리 뽑으라"고 선전을 해대는 것 같다. 학교에서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제당하

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현실인가.

뉴스투데이는 이 사회가 동성애자에게 가하는 온갖 차별을 그대로 답습했다. 동성애가 오래전 정신질환 항목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의 동성애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치부했다. 이는 여전히 학교 성교육에서도 동성애를 공공연히 '이상 성행동'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동성애 금지'는 이 사회에서 약자인 청소년에게 더욱 쉽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 사이트에 노출되어 동성애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4년 초, 청소년 보호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오랜 기간 동성애자들의 투쟁으로 삭제되었다.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못 박은 법제도를 우리 손으로 없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우리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동성애자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MB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MBC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동성애자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보도의 주된 공격대상인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공분을 모아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분출시키지 못한 것일 것이다. 물론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말미암아 행동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은 매우 실현되기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각 동성애자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주변 친구들을 모으고 공분을 모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청소년 동성애자 자신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 같다. 나아가 이는 MBC의 혐오보도 문제를 넘어, 지금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활동 자체가 바로 MBC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지라도 말이다.

지금 많은 동성애자 단체들이 청소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현재의 상황과 때마침 터진 청소년 동성애자 왜곡 및 혐오보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침묵 속에 억눌려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바로 '지금, 천천히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청소년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순간이 아닐까?

LGBT paper



▲ 7월 13일 MBC 뉴스투데이에는 '이반'을 '이성에 반대하는'이라고 표현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동성애에 대해 무지한지 보여주었으며, '前 이반소속 여중생'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동성애자를 유해한 집단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레즈비언 업소에 잠입취재해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포스터를 가리켜, "통로에서부터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포스터를 '버젓이' 부쳐놓은 이곳은 이성을 반대하는 십대들의 전용카페입니다."라고 소개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인양 폄하하였다.

▲ 현재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은 MBC 측에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와 반인권적 보도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제작진과 취재진 징계 △해당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임직원에게 대한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윤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얼마 전 지역번호 061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부재중 번호가 휴대전화에 찍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는 다름 아닌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회원 A였다. 지금 전라도 순천에 있는 한 절에 있다고 했다. 왜 그곳까지 갔느냐 하고 질문에 던졌지만 답은 이미 A의 삶 속에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무미건조한 대화만을 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난 나의 일상에서 잠시 멀어져간 그 친구의 삶을 떠올렸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갈 19살의 청소년! 2003년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제를 위해 많은 성소수자들이 캠페인, 집회를 벌이며 거리에서 뛰어다녔던 그 때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청소년 동성애자!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과 학교로부터 버림받고 서울로 상경해 힘든 노동일을 해가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그 친구는 동성애자 모임에서만 틈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만큼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밝고 적극적인 친구로 기억되고 있다. 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간혹 '충격적인 문자'를 날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좋지 않은 취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얼마 전까지도 양화대교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그 친구를 경찰서에 찾아가 신변인도 서약을 하고 데려 올 만큼 '위기, 불안, 우울' 이 세 단어는 A의 일상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

지난 7월13일에 방영된 MBC <뉴스투데이-현장 속으로>의 이반문화 확산 보도는 이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억압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동성애 성향에 무감각해진 아무생각 없는 존재로 표현되었고, 청소년기 가질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이성애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렸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물론 동성애와 관련된 정보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여전히 음란과 유해한 행위이고 동성애자는 청소년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유해한 집단들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 무관하게 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등의 각종 미디어의 보급은 정보획득에 취약했던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고 그런 만큼 과거보다 일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동성애에 대해 좀 더 유연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 반면 야오이, 팬픽과 같은 현실과 거리가 먼 매체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만의 환상과 이미지를 키워 나가게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을 벗어나 실제 현실을 맞닥드리게 되면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보인다는 사실도

학교에서는 머리가 짧고 동성친구와 스킨십이 있거나 해도 제재를 가하는 검열의 현실에 놓여있고 자신의 정체성이 주변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우팅(Outing)에 대한 불안과 존재감에 대한 좌절을 겪는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3년 실시한 조사 중 '가까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부하는 행동(79%)이 수용적 태도(17%)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동료들로부터 가해지는 신체, 언어적 폭력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연구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등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청소년들은 불과 9.3%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에 대한 답변 중 '이성애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병원가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 '건강한 이성 만남을 권장한다' 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더욱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대답이 많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해 신체적, 사회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우울과 자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30% 정도가 동성애적인 정체성 때문이라는 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

실이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매 45분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매 6시간마다 자살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적응 장애, 낮은 자아존중감, 가출, 약물남용, 높은 음주흡연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중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단번에 음란과 유해가 되는 세상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인가

지금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든 '덜 자란'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당한다. 10년이 넘는 교육기간 동안 이들은 행동과 생각이 제한된 미완성의 존재이자, 보호의 대상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쓰여지는 기득권층의 사고일 뿐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권리들은 청소년들을 비껴간다. 그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

두발자유화, 내신등급제 반대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가 청소년 운동을 만들어나가고 집회를 조직하려 했을 때 이들을 감시하려고 집회 장소에 다수의 교육청 직원과 교사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기득권층에게 청소년 '보호'와 '통제'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단서가 잡히기라도 하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머리 속까지 검열, 통제 하려하고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는 윤리적 공포심을 갖게 하여 국가, 학교가 개입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검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끔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둔 노동자 부모들은 자신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며 또래 동료들은 편견으로 가득찬 제도교육으로 가지게 된 동성애혐오증(homophobia)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이중, 삼중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기득권층이 말하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은 분명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단지 성적 보수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노동계급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 윤리가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성인들 스스로 자기검열하는 하라는 무의식적 요구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소수자 인권은 쉽게 묵살되어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는다. 청소년이라는 약한 고리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물론 모든 성소수자들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투쟁을 시작하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지 1년!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4년 동안 싸워 얻어낸 성과는 실질적인 차별철폐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당연한 가치라고 여겨져 왔던 '동성애=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음란한 행위'라는 해독은 공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성소수자 운동 진영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바꾸려나가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0대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차별실태를 접수 받거나(한국레즈비언 상담소),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발간 활동(한국 성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 캠프 및 교사들과의 간담회 개최(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거리 캠페인(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청소년 이슈로 모아지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자기 결정권을 통제받고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언제나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총체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과 함께 할 때만이 빛을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 글을 마무리할 때쯤 A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순천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어쩌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자유로운 삶일지 모른다.

'HIV/AIDS 고위험군 남성동성애자'들이 처한 '위험'의 본질

변진옥 _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 활동가



1. 위험

risk의 원래의 뜻은 어떠한 가치판단이 없이 단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주사위 확률 같은 것이었다. 수학이 위험(내지는 확률)분석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전에는 운이라거나 운명 또는 숙명과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은 일부사람들에게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던가보다. 이들은 끊임없이 data를 만들어 내고 그 data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한 집단에서 일어났던 것이 다른 집단에서는 어떻게 될 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위험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Risk'는 무소부재성을 획득하게 되고, Risk는 곧 danger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떤 Risk도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

위험을 나누어 보자면 상당히 여러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건강분야에서 이야기 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개의 주요관점으로 분류된다.1)

(1) risk as health danger to population

: 오염, 핵폐기물, 독성화학잔류물

; external, 개인이 콘트롤 할 수 없는 것

(2) risk as a consequence of the 'lifestyle' choices

; internal,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

폐암에 걸릴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이나 도로의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가스 같은 것들보다 담배를 훨씬 더 큰 원인으로 생각하게 만든 이유를 대보자. 어찌보면, 누구에게 잘못을 전가하기 힘든, 외재적이고 구조적인 면 보다는 개인의 행위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편리한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증명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흡연이외의 다른 원인들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그것은 사회전체의 위계구조와 정치경제적 원리 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회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선택된 위험은 '진짜' danger와는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AIDS 역학과 위험집단

역학(epidemiology)이라는 학문이 있다. 의학이 한 개인의 신체를 들여다보고 비정상(평균을 벗어나는)을 발견해 내어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역학은 그 대상을 전체 인구집단으로 확장시켜보면 된다. 인구집단 중에서 어느 곳에 특정질환, 혹은 사망이 비정상적인 수준(평균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집단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들여본다. 역학적으로 위험집단은 특정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정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대중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초래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위험한' 사람들과 '일반대중' 사이에 경계가 세워진다.2) 이것은 지리적인 집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 라이프스타일(생활습관)과 관련된 집단의 동질화라는 단순화를 수반한다.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위험과 연결시켜 집단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역학자는 위험인자와 질환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의 위험을, '불건강한 성'은 에이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논의에 위험이라는 것 외에 중심적인 또 하나의 개념이 "통제" 개념이다.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여 어느 정도 질환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자, 그럼 남성동성애자가 HIV고위험 집단으로 개념화된 혹은 주장된 과정을 한번 역학적으로 살펴보자. 어느 순간 그동안 의사들이 잘 관찰해오지 못했던 질병이 미국의 서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제한된 data를 가지고 짚을 굴려보았더니, 이 데이터에 최초로 동성애자, 그다음 마약사용자, 성매매여성, 혈우병환자, AIDS감염여성의 아이들에게서 AIDS가 발견되었고 이들이 위험그룹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학은 일단 질환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질병을 통제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인데 이를 유식한 말로 '원인적 상관성'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 집단들과 이 무서운 질병이 상관이 큰 것으로 보아, 성관계, 혈액, 유즙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감염자들에 대해 여러 검사를 해보다 보니 결국 HIV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HIV는 여차저차 하여 원인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하기 어

렵다. 결국 그 이전단계, 혈액, 정액, 유즙 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체액의 교환을 통제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의 행위에 원인을 돌리기 쉬운 뿐 아니라, 역학의 정치적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기도 했을 것이다. 결국 체액의 교환이란 게 무엇이겠나, AIDS가 성적인 행위로 인한 전파로서 강하게 인식되고 이러한 이미지가 특정집단에 집중되면서 AIDS감염은 곧, 성적 관계의 사회적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과정들은 위험집단 개념(역학의 중요한 해석적 장치)의 단순화를 초래한다. 대중들은 단순한 것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남몰래 키워오던 증오와 결합하면서 이것은 대중 속으로 빠르게 침투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이 감염위험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위험집단 논리'의 본질이다. 단순하여 유통이 쉽고 사람들의 감추어진 욕망과 쉽게 결합한다. 이 위험집단 논리의 결과로 말하자면 고위험 집단들, 이들은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가장 자유와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이어서, 어떠한 자원에도 접근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즉, 사회에 위험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다. 동성애자, 마약사용자, 섹스워커, 가난한 아프리카 여성, 이들이 단지 AIDS에만 위험한가? 이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난받아 마땅한가? 위험담론에는 군사적 느낌을 주는 비유가 통용된다. 위험은 '침입'하고 '타격'을 가하며 '절령'한다.3). 위험의 발생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사회집단. 따라서 '일탈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고 현재도 창궐하고 있다는 생각은 빈곤, 질병과 기아가 다반사인 이 불모의 대륙을 보는 서방의 시각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에이즈가 한국에 처음 발견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 진보적인 보건의료지식인들의 구호는 이런 것이었다. '더러운 양키병을 가지고 오는 미군을 철수하라.' 이러한 구호의 잘못된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평소 혐오자와 질병의 연관성이 얼마나 쉽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게이와 마약사용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던 감염형태가 현재는 이성애자들에게 더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이성애형태가 감염의 80%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다른 성병이 HIV감염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아시아는 감염의 시작은 늦었지만, 마약사용자와 섹스워커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이성애자로 매춘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에 널리 확산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일본의 이성애감염이 타이의 매춘 여성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콘돔의 바른 사용이나 절제에 대한 개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 요인들이 관련된 복잡한 과정인 것이다.

3) Deborah Lupton, *Taming Uncertainty: Risk Discourse and Diagnostic Testing*. The Imperative of health. SAGE Publication, 1995.

4) 사라 네블턴 지음,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5.

5) 수잔 손탁 지음,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3. 남성 동성애자가 처한 위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프랑스의 연구에 의하면, 게이 사회에서 HIV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콘돔사용에 대해 환경과 캠페인이 지속되었음에도 그 실천에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플라치오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단지 입안에 사정을 하지 않는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삽입에 있어서는 캐주얼 섹스의 경우 4분의 3정도가 콘돔을 사용하지만, 정기적 파트너의 경우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로 HIV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파트너는 거의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 반대로 둘 다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콘돔사용이 높지 않으며, 단지, 한쪽만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콘돔사용이 일반적인 불처치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

하지 않고 성관계 하는 사람이 있다. 더군다나 일정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혼외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고정파트너와의 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신뢰와 콘돔의 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⁴⁾ 아마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달해졌다고는 해도, 성적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성애자임을 털어놓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부모와 다른 대다수의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과 비밀을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동성애 커뮤니티는 내놓고 끼를 뿜 수 있는 해방공간이다. HIV의 영향때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고정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동거를 기본으로 하는 이성애식의 커플보다는 생활은 여전히 따로하는 비동거 커플이 상대적으로 유세하며, 어떻게든 제도적 압력도 낮은 상황에서 성관계 파트너의 수는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많다. 특히 나이든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고정파트너보다는 원나잇 스탠드 관계를 더 선호한다. 동성애자들은 집을 일찍 떠나 주로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몇몇지역에 밀집된 사교공간을 통해 교제한다. 물론 소위 말하는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아마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HIV-test도 우리나라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AIDS예방운동이 강조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는 콘돔이 나를 HIV로부터 조금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고정파트너와의 신뢰는 망가뜨릴 수 있으며, 고무의 감촉을 느끼

면서 성관계하는데 대해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콘돔사용을 하려면 차라리 성관계를 안하는 게 낫다고도 느낄 수 있고, 더 고차원적으로는 동성애와 HIV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콘돔의 사용은 사실은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 이성애자들에 비해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감염된 동성애자의 경우에서 생각해 보자면 더 큰 위험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감염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이 좁은 바닥에서 누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사회적 존재의 상실을 맛보아야 할 수도 있다. HIV에 감염이 됨으로써 그들은 에이즈에 있어서의 '동성애 신화'의 산 증인이 되고, 다른 동성애자들이 운명적으로 직감하는 좌절의 끝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동정받으나 그와 함께 더 미움받는다.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 "그러게 그렇게 지지분하게 놀지 말았어야지."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남성동성애자들의 성행태는 아마도 HIV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콘돔사용과 관련해서 이들이 더욱 위험하게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씌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남성의 콘돔사용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에이즈와 관련해 '일반대중'과 '위험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은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마약주사를 사용하는 남성동성애자만큼이나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왜냐하면 에이즈의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은 어떤 특수 사회집단이 아니라, 예방조치 없이 항문 또는 질성교를 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를 쓰는 등의 특정활동이나 위험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위험집단'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이 특별히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질병을 무릎쓰고도 쾌락을 즐

기는 달떨어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없다. 단지 이러한 '위험집단' 개념은 차별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복무할 뿐이다. 오히려 감염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위험집단이라는 꼬리표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위험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행동을 피해야겠다고 조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감염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라기 보다 어떤 집단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런생각이 문제를 도덕시키고 특히 에이즈가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즈에 관한 보도를 보면 매춘부,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마약사용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자기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혈우병자, 수혈자, 모태감염으로 감염된 어린이는 '억울한 것'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이 지각하는 에이즈의 위험과 에이즈에 대한 대응이 연관된다. 에이즈의 위험이 특수한 위험집단에 국한된 문제이고 이게 도덕과 연관되어 인식되어 지게 되면, 이들은 더욱 강압적으로 위험집단을 취급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강경한 도덕주의자들이 사실은 '안전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은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낙인찍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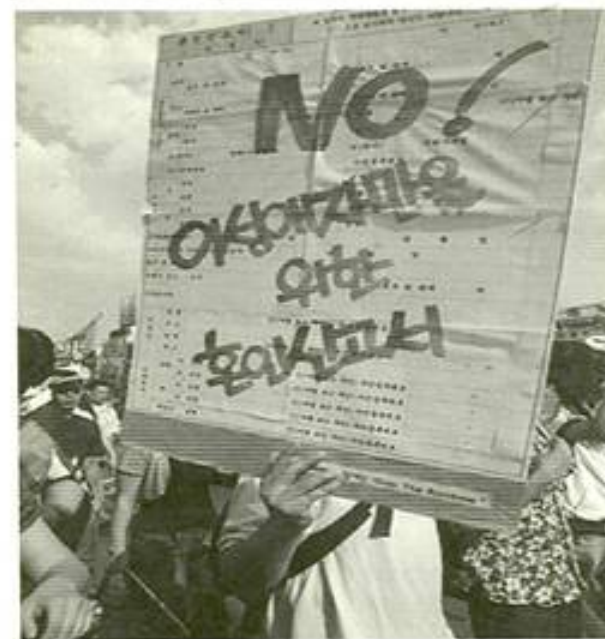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집단은 바로 이들이고 남성동성애자들은 바로 이러한 극한의 위험에 처해 있다.

4) Marie-Ange SCHILTZ, *Young Homosexual Itineraries in The Context of HIV: Establishing lifestyles.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10(2), 1998, 417-446.

“살아숨쉬는 무지개 빛깔 목소리”

2005 퀴어퍼레이드 참가

지난 6월 5일 종로에서 펼쳐진 2005 퀴어문화축제 행사 “퀴어퍼레이드”! 이 행사에 동인련은 2005 퀴어퍼레이드 참가단 “Over the Rainbow”를 동성애자커뮤니티에 제안하고 참가했다. 이 글은 한국외대 이반커뮤니티 Hufsanevan 회원인 안젤라님의 퍼레이드 참가 후기이다. - 편집자 주 -



일본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림판 서울이었는데 막상 귀국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조금의 여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논문과 졸업시험과 각종 발표 준비들을 하면서 속 편해 하였다. 술 한잔을 걸치면서 감상적인 생각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 사는 맛'나는 주제보다는 현실적인 성취욕에 빠져 사는것이 보람 있어 보였다.

스스로 만든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오히려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일, 일, 일에만 집중한다.

내가 그렇게 무드없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솔리드는 자신을 위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다. 오늘의 성공적이었던 '퀴어 퍼레이드'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의 준비 작품이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 이루어 낸 작품이었지만, 이번 퀴어 퍼레이드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었던 솔리드의 공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기에...)

퀴어 퍼레이드를 구성 멤버였던 동인련은 많은 준비를 하였다. 혼해 빠진 이성애자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문제들을 동성애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무지개 색깔 군단을 만들었다.

빨강군단 - 성소수자의 노동권 문제
주황군단 - HIV와 AIDS의 잘못된

인식들
노랑군단 - 동성결혼
초록군단 -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야반검열
파랑군단 - 동성애자들은 다른 세상을 향한 목소리
보라군단 -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

각각의 군단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르고 종묘 공원을 출발하였다.

용기 있는 그들의 모습은 행진을 바라보던 숨어있던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60명, 70명, 100명, 160명, 함께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외치고 그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외쳤다.

"여러분, 저 게이예요~하하하!!"

플래시가 터지는 종로 대로를 목청 소리 좋게 외쳐대는 무리들. 이것이 '나'라며 대중 앞에서 솔직해 질 수 있었던 순간들. 즐거운 음악과 함께 그들이 살아있음을 유쾌한 발걸음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오늘 하루.

퍼레이드 참가단의 색깔 군단들은 용기가 없어 숨죽이고 있던 동성애자들에게 편안한 손길을 건네주었고 그들은 구경꾼들의 무리에서 뛰쳐 나와 스스로 무지개가 되었다. 퍼레이드 참가단은 부뚱했다. 그들에게 건넨 손길들은 묵직하였다. 퀴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 늦은 길에 나는 오늘 나의 하루가 오랜만에 행복했었다고 생각하였다.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 해 달라고 어렵게 부탁

하던 솔리드의 목소리. 내 일에만 빠져 주위를 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서운해 했던 목소리. 예전 같지 않은 친구와 예전 같지 않은 술자리가 이어져도 그래도 언제나처럼 전화하여 '야, 나와'를 외쳤던 목소리.

큰 행사 준비로 바빴을 하루 하루가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칠 줄 모르고 웃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만을 지었었는데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지 수천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린 아직까지도 그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를 간과하고 만다. 자신을 현실에 맞추기에 능숙해지는 바람에 현실을 자신에게 맞추고자 한다면 괜한 바보가 되고 마는 세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를 상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뜻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잊혀져 간다. 바로 요즘의 나 처럼 말이다.

결국 솔리드는 그런 나에게 행동으로 충고를 해 준 셈이 되었다. 정작 자신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말이다.

LGBT paper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Pride Party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서평택 아츠밸리 유스호스텔에서 총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가 "Pride Party"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위 글은 캠프공동준비단으로 활동한 중앙대 이반커뮤니티 'Rainbow Fish' 회원인 '물고기'님의 후기이다. - 편집자 주 -

알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기획하는 인권캠프가 있다는 걸.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다 해에는 혼자 찾아가기 뻔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시간이 안맞아서 - 이런 저런 이유로 캠프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내게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것도 준비단으로.

첫 회의 날. 헉헉거리며 동인련 사무실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의 그 엄숙하던 분위기가 생각난다. 인권캠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프나 모임에 참가한 본 경험이 전무한 내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스쳐지나가던 암울한 걱정.
작고 높은 동인련 사무실에서 북닥거리며 선풍기를 흑사시키며 보냈던 고생스러운 시간들과 회의에서 회의가 거듭되고, 다같이 고민스러워 머리를 긁고 쥐어짜낸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연들이 늘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던 걱정은 잘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바뀌어 갔다.

드디어 캠프 당일. 선발대로 출발해 준비를 마친

고 참가자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긴장과 걱정으로 두근대는 심장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의 그다지 밝지 않은 얼굴들이 저 멀리서부터 보였을 때의 그 답답한 기분이란. 정말 모두가 즐겁게 지내다 갈 수 있는 캠프가 될까하는 공포에 가까웠던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정말이지...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엮질러진 물이고 시작된 캠프인 것을!

이런저런 두근거림 속에 캠프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잊지 못할 2박 3일의 추억이 생겨났다.

욕심, 걱정, 기대, 막상 현실로 닥쳐왔을 때의 뿌듯함과 시행착오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걱정, 본의 아니게 진행에 차질이 생겨버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 경험들.

그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과연 모두에게 그런 캠프였을지

는 솔직히 모르겠다. 분명 나와 우리 준비단의 욕심과 바램처럼 즐기지 못했던, 혹은 즐기지 않은 참가자들도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목격한 참가자들의 열의와 진지함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른다. 남몰래 훌쩍거리게 했던 그 감동들, 몇 번이고 회상해도 나를 울컥거리게 하는.

캠프가 끝나고 녹조가 되어 집에 돌아와 캠프의 여파로 인한 감기몸살을 끄끄 앓으면서 생각했다. 다음 캠프는 절대 기획단으로 참가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맛있는 음식과 쾌감은 중독된다. 나는 벌써부터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다.

겨울에 열릴 거라는 다음 캠프를. 그 캠프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수집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한 몫 해내는 기획단 일꾼이 되어야지 다짐하면서.

LGBT paper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단국대학교 동성애자모임 'Pink Triangle - 핑크 트라이앵글'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모임 '붉은이반' / 서울대학교 이반동아리 'QIS - 퀴이즈' /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 성신여자대학교 레즈비언 커뮤니티 'LCIS - Lesbian Community in Sungshin Univ.' / 연세대학교 'come together' - 컴투게더 / 중앙대학교 이반커뮤니티 'Rainbow Fish - 레인보우 피쉬' /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의국어대학교 'Hufsanevan - 흡산이반' / 한국청소년 성소수자모임 'AnyFren - 애니프렌' / 한양대학교 '이반한양'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에 도움을 주신 분들

남성동성애자커뮤니티 '이반시티' / '도모' 종로 이반 bar / 'U bar - the place for you' 종로 이반 bar / 반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두 달 간 감동적인 캠프를 만들어주신 공동준비단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연자로 선뜻 응해주신 '변진욱(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 이영감 /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여기동(동성애자인권연대) 님에게 감사드리며, 차사고로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인권감수성프로그램을 감동적으로 펼쳐주신 배경내, 김영원님(인권운동사랑방)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에 참가해주신 60여명의 참가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간의 캠프가 앞으로의 삶에 활력으로 함께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동성애자 가족의 유형 및 의미

여기동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가족의 유형은 어떠하며 그 가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으로 정의되는 동성애자의 부모와 형제 즉 생물학적 가족의 의미보다 훨씬 크고 넓다.

이반에게 있어서 첫번째 가족은 동성혼 부부 또는 커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순수 동성애 가족이다. 결혼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고유한 권리이자 특권이다. 결혼법은 친밀하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헌법이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결혼은 사랑 안에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부모형제나 이성애우월주의자 또는 국가 간섭할 수 없다.

동성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결혼제도는 이성애자들만의 전치이자 특권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야말로 이성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동성혼 부부에게 평등의 균형 추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요 동성혼이 보장될 때야 비로써 완전한 법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결혼은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진보하여 왔다. 시민결합이나 파트너십제도는 처음에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엄밀히 보면 이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차별하고 분리하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어떤 제도도 동성혼을 대체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이반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애자 가정에서 키워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반부부들이 키운 아이들이 다른 이성애자부부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동성애적 사건이나 성적체성의 문제를 갖지 않는다. 이성애자 사회에서 이반 부모와 함께 자란 이반 자녀들은 낙인과 힘

든 난관에 부딪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

게이레즈비언부부 및 자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반의 부모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부모에게 커밍아웃 한다면 부모와 형제들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그룹의 일원이 될으로써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식의 행복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당사자 자신의 가족, 친구,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터 거부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 한다. 외국의 경우 다행히도 그들 자녀의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PFLAG과 같은 부모 친구들이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지지협력그룹의 구성과 역할이 기대된다(미정신의학회, 2000: www.psych.org)

동성애자에게 있어서 두번째 가족은 커뮤니티 구성원 서로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제2의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친밀감이 있으며 차별과 억압 같은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살아 간다. 이와 같이 제2의 가족은 포비아적인 제3의 가족보다 백배 천배 나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반 개인의 생물학적 부모와 형제는 제3의 가족으로 구분된다.

이반은 언제나 제3가족과의 화합과 직면을 하게 되는데 커밍아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족에게 바라는 요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상호존중의 원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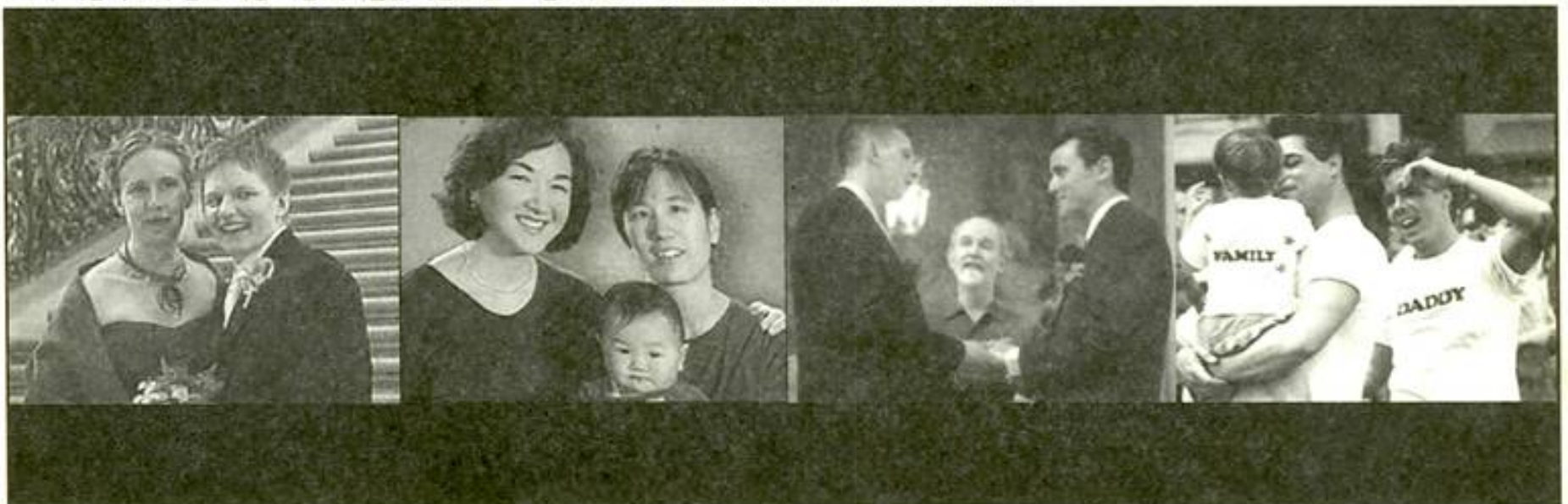
고수하고 불편함과 혐오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이 원하는 선의 확인하고 대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내 혐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야 한다.

이성애우월주의는 사회, 정치,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이고 동성애 혐오증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태도와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유교문화 속에서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요구가 우선시 되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반은 대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잘나빠진 가문의 체면과 품위유지 때문에 동성애자를 쫓아 낼 수 있고 장남의 경우 대를 이어야 하는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면서 북아메리카 기독교 근본주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보는 동성애 혐오태도가 형성되었다(Nakaiima, Chan & Lee, 1996).

이반인 나에서 출발하여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 세계관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자. 그 누구도 우리의 관계나 존재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부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잣대를 이성애자 세계에 들이대자.

LGBT paper



'2005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정숙 _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활동가

동성애자 인권연대와 성소수자 인권상담센터는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총 16강좌로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땅에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담사례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상담은 그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담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4년에 이어 진행된 2005년 성소수자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은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심리, 성소수자를 둔 가족상담, 기혼 성소수자와 그 배우자 상담, 에이즈, 트랜스젠더 등 총 16가지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상담원 양성교육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개인적인 삶의 고민과 행복 속에서 싸우고 치고 박고 불행 할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생들의 고민은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와 당장의 삶과 일에서 세상이 이들을 낫게 해 준다는 것을 교육기간이나마 알게 되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의 남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성소수자 전문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고...

紫雲英

처음 이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이전과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지금의 내 머릿속은 처음과는 다른 그 무엇으로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다. 단순히 생각했던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소수자 인권상담센터의 그동안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교육이었다. 이 과정의 주목적은 전문상담기술의 습득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이 마인드를 갖게 하는 교육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성소수자들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16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의 다양한 주제는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및 성소수자 수강생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갖게 했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이 오히려 이 교육과정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고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교육과정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주제들이 가벼운 호기심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몇몇 과정을 통합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내 우물에 침 뱉기'식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되는 풍토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보다는 일반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철옹성보다 높은 편견과 차별을 실감하고 난 뒤의 무력감과 허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부족하고 미완성일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연륜이 쌓여 언젠가는 뿌리내리고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의 정신이 아닐까.

LGBT paper

2005,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 자료집 소개

- (1)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 1) 성소수자 상담원이 알아야 할 기초지식
 - 2)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과 상담 _ 단 영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
- (2) 상담원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_ 홍의표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 (3) 정체성에 대한 이해
 - 1) 정체성 상담에서 열린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 _ 이경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상담원)
 - 2) 정체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성소수자 상담원이 가져야 하는 자세 _ 여기동 (정신과 간호사,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의료상담)
- (4) 성소수자 상담으로의 접근
 - 1)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의 이해
 - 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 _ 쾌이 / 태원 (다큐멘터리 이반검열 출연)
 - ②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_ 하경희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
 - 2) HIV/AIDS 상담의 이해
 - ① HIV 상식과 상담 _ 윤호재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대표)
 - ② 동성애자, AIDS 낙인과 예방의 경계선에서 _ 정을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상담원)
 - 3) 기혼성소수자와 그 배우자 상담 _ 고승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 4) 성소수자 건강문제와 상담 _ 미류 (의료인, 인권운동사랑방)
 - 5) 성소수자를 둔 가족 상담 _ 정을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상담원)
 - 6)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상담 _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 7) 트랜스젠더에게서 듣는 삶의 이야기 _ 김비 (웃생김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저자)

총 페이지수 : 208p

판매가 : 10,000원 (우편료 포함)

계좌번호

832102-04-039609 국민은행 예금주 : 정을(상담센터)

자료문의 : 02-778-9982 / queerkorea@empal.com

: 자료문의시 받아보실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문화 _ Queer Eye _ “ 영화 『달콤한 인생』 달콤하게 바라보기 ”

역마살 -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꽤나 강력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일반이든 이반이든,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력한 이성애적 포스로 인해 퀴어들은 입사리 자기비하의 나락으로 빠지거나, 때로는 어색하게 '그들'만의 양식을 모방하며 어설픈 자기만족을 느끼게끔 한다. 하지만 이성애 중심적 세상 역시 수많은 균열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퀴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벅차게 캐내어 조종하고, 퀴어적으로 읽어내면서 그들의 양식에 빗대어 닫힌 욕망을 풀어내곤 한다. 물론 퀴어로서 우리들의 욕망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석의 과정 없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럴 기회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신나는 오해'의 즐거움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차피 세상에 객관이란 없는 것. 그러니 철저히 주관적으로 바라보며 마음껏 즐겨주는 것을 거부할 이유 또한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봄, 굵지 않은 평가를 받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얻었던 김지운 감독의 <달콤한 인생>을 신나게 '오해'해보고자 한다.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건방지게도 절대 없다.

<달콤한 인생>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설득력을 잃어버린 서사의 전개를 향해 있었다. 보스의 여자를 낚은 대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의 향연은 2% 부족한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왜 주인공 선우(이병헌)이 레스토랑 '라 돌체 비타'에서의 달콤한 인생을 접고 유혈이 난자한 의리 없는 전쟁을 감행해야 하는지, 보스(김영철)는 여자를 빼앗긴 것도 아닌데 손목 절단 운운하며 선우의 목을 왜 따려 하는지, 나름대로 팜프파탈인 회수(신민아)는 징징거리다 왜 은근슬쩍 사라지는지를, 관객은 느와르의 장르적 특성을 떠올리며 맞춰가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벅차 오르자, 동성애 중심한 <달콤한 인생>의 행간을 짚 채울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오, 사랑!

전혀 달콤하지 않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이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하다. 선우 총각 바람났네. 그리고 이어지는 보스의 파경 선언. "부숴버릴 테야." 선우와 보스의 의리 없는 전쟁의 실체는 사실 인생 최대의 사랑싸움인 것이다. 이병헌-김영철, 이 선남과 선남의 아름다운 사랑. 영화가 불친절하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 사랑 때문에 단지 한 번 팔았을 뿐인 선우는 보스에게 린치를 당하고, 여자에게 남자친구를 빼앗긴 보스는 선우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순진한 회수씨는 극의 중반 이후 서서히 배제된다.

좀 더 벅차게 전진해보자. 필름 느와르라는 장르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전혀 '파탈'하지 않은 어설픈 팜프파탈 신민아는 선우와 보스의 동성애적 욕망을 감추려는 장치이자, 보스를 향한 선우의 사랑을 시험하는 미끼였을 뿐이다. 따라서 영화의 중후반, 그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후반부는 이병헌-김영철 커플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과 전쟁'에 할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스에게 총부리를 겨눈 선우는 말한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질질질, 울면서 말한다.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개처럼 일한 나를." 이 대사가 개연성을 얻기 위해선 행간에 숨은 키워드를 밝혔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7년을 이어온 두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따라서 이 대사는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말해봐요..... 왜 저를 찾았어요? 7년 동안 몸 바쳐 마음 바쳐 사랑한 나를."

이성애 중심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서사로 가득한 한국영화에서 남성간의 '근접한 유대와 의리'를 과하게 전면화하는 동성사회성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리고 그러한 재현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의 우정과 의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다시 한 번 벅차게 얘기하자면, 여성의 존재는 두 남성의 우정과 의리가 동성애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인 것이다. 2003년작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는 과잉된 남성 동성사회성이 매우 야릇하게 재현된 최고의

작품이라 할만하다.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의 주인공은 손예진-차태현 커플이 아니다. 손예진을 통하여 끈끈한 남성적 사랑을 나누는 유동근-차태현 커플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처녀성을 보전하기 위해 성애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손예진 대신, 유동근과 차태현은 서로를 물고 빨며 남성 성애를 재현한다. 두 남자의 끈끈한 우정과 의리, 이것은 동성을 향한 사랑과 습자지한 장 차이인지도 모른다.

서구의 필름 느와르가 한국적 정서와 만나 탄생한 <달콤한 인생>은 그 독특한 이접성과 함께, 스크린 아래 숨겨진 두 남성의 동성애적 욕망으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물론 영화는 보스를 죽이고 회수에게 애절하게 전화를 거는 선우의 모습을 통해 동성애적 욕망의 재현을 차단시킨다. 결말 부분에서 이러한 자기검열은 지난 2시간 동안의 피의 복수극이 모두 선우의 상상이었음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달콤한 인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혹시, 어쩌면, 신민아가 연기한 회수는 선우의 애절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보스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안온한 선우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 영화는 바로 그 결말 때문에, 보스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약간의 권태를 느끼는 부하의 애교 섞인 바람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벅차게 뒤돌았던 <달콤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다. 허나 영화를 감상하는데 있어 정답이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독과 작가와 원작의 의도가 관객의 무한한 상상력을 압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편의 영화를 바라보고, 읽고, 느끼는 기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일 테니까. 그러니 즐기자. 퀴어 아닌 것을 퀴어로 만드는 죄책감 따위는 저 멀리 날려버리고 마음껏, 벅차게, 끼스럽게, 즐기자.

독자편지

격월로 발행되는 LGBT paper의 '독자편지'란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lgbtpride@empal.com 으로 머리말 [독자편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나들이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후기

캠프 참가자 옥

'꽃' 하나도 각자가 다른 사람들

인권과 감수성.

어찌 보면, 참 안 어울리는 단어들인 것 같다. 나의 느낌이 그래서였을까. 인권이라는 말은 참 어렵고 낯설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감수성이라는 말은 가을에 흔히 우리가 읽는 사랑을 노래한 시집의 앞게 퍼진 책갈피 같은 느낌이었다. 그 단어 둘의 조합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여름의 따가운 햇볕에 몸이 녹녹히 녹아들었을 쯤, 우리의 프로그램은 동글게 물러앉은 미소만큼이나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미워져 왔던 프로그램이 와서 사람들도 조금은 지친 모양이었지만, 이내 사람들은 활력을 조금씩 피기 시작했고, 강사분의 가방에서 색종이가 나올 때에는 뭘 하는 걸까 하는 궁금 어린 눈망울들을 하나씩 굴리기 시작했다.

강사분은 다양한 색상의 색종이를 꺼내 주시고는 우리에게 맘에 드는 색깔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분홍색!' '나는 연두색!'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을 외치면서, 우리는 이미 그 프로그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색종이를 가지고 꽃을 만들라고 하셨다. 꽃, 나는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떠올리고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다 똑같은 꽃을 만들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자가 다 다른 꽃이었다. 어떤 사람은 접어서 만든 꽃, 어떤 사람은 동글게 그냥 찢어서 만든 꽃, 어떤 사람은 구겨서 만든 꽃, 꽃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게 다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갈 때 쯤, 인권이라는 것이 그리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잠시 지나갔다.

가장 소중한 보물들

"다 만든 꽃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보물 다섯 가지를 쓰세요."

나의 보물을 꽃잎 하나하나에 써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뭘 쓰나 고민했었는데, 막상 쓸려고 생각해보니 내 주위에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다. 친구, 나의 보물함, 내가 살아온 추억들, 의외로 광활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주위에 보물들이 조심히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보물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모두 숙연하기도 했다. 남의 보물을 들으면서,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의미와 시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했으며, 나와 공통적인 보물이 발견될 때는 기쁨도 가질 수 있었다. 또 공통적인 보물들도 발견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별한 보물들이 나올 때도 있었다.

모두 자신을 말하듯, 자신을 소개하듯 가볍게 떨리는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자신의 꽃이 벽에 하나씩 붙여질 때마다 설렌 손가락도 볼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난 뒤, 그 꽃들을 강사분이 벽에서 떼어 뜨리고 찢기 시작했다. 그리고 휘저어 놓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꽃이 떨어지고 찢길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맘이 상하는 표정이기도 했다.

강사분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리고 다시 붙였지만, 예전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를 주었다. 서서히 우리에게 인권이란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느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되어보기

그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시간이었다. 강사분은 우리의 등에 다양한 직업과 소속이 담긴 쪽지를 우리가 모르게 붙여줬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직업과 소속에 맞는 그 사람이 자기 등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레즈비언', '게이', '3대 미혼녀', '박수', '고졸취업자', '재수생' 등등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소외받는 직업과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등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해주었다.

예를 들어, '재수생' 라면, "공부 좀 해라. 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공부를 안 하니?" 이런 식인 것이다. 위로를 해주는 말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 소속이나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차가운 비판들이었다. 막상 내가 그런 말을 들으니, 맘이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다.

나야 한 순간이었지만, 이런 말들을 일상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듣고, 이런 눈총

을 받는다면, 맘이 많이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뱉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말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인권이라는 것에 무감각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다.

정리하기

사람이 날 때로부터 가지는 자유 평등의 권리,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있다. 날 때부터 가지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이것이 인권인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권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인권이라는 것에 무감각하게, 또 자신의 인권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까닭은 아닐까.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은 과격하게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해보면 까닭은 아닐까.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남의 상황과 권리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머리와 법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인권 감수성을 끌어내 주었다. 살아가는 일에 팔라버린 내 마음이 특별한 나들이를 나간 느낌이었다. 이런 특별한 나들이가 이젠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청소년 이반 활력캠프를 함께하며.....

현아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짧지만 강렬했던 장마와 불볕더위와 함께 보냈던 종로의 한 작은 사무실,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즐겁고 활기차게, 청소년 이반 활력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인권학교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토론을 하였고 가끔은 토론이 격해져 논쟁이 불기도 하였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 지난 두 달,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청소년 인권 학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과 동성애자 인권 캠프를 준비하며 느꼈던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번 인권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동인연에서 하는 청소년 사업과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행사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현아라는 한 아이는 이제 청소년 활동가로 벌써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라 하기엔 좀 무리감이 있는 나이가 되어버린 지금,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이런 행사를 그것도 2년씩이나 준비를 할 것이라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가서 이야기를 듣고, 강연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만족했던 2003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2년이나 준비를 하며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비판하지 않고 나와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애꿎은 포스터를 찢으며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져?" 라고 말하기 보단 나와서 자신들의 불만을 얘기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대체 왜 청소년의 인권은 없다. 라고 사회에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지, 동성애자

가 왜 에이즈의 주범이라고 하는지, 왜 반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가 편견을 쌓으며 상처를 내기 전에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해가 갈수록 생깁니다.

이번 청소년 이반 활력 캠프를 진행하며 웃고 떠들고, 아픔을 이야기 하며 해방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이반은 비행 청소년이 아닙니다. 폭력 집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힘이 없어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10대의 장난스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악이 아니라고. 우리도 인권을 가진 하나의 어엿한 사회의 주체이노라고. 2박 3일, 그리고 두 달,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청소년 이반 활력캠프를 함께 해주셨던 기획위원과 참가자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발 빠르게 움직이셨던 많은 기획위원들, 특히 많이 전해져서 좋은 J 군과 K 군, N 언니와 S 오빠, 이 사람들이 저를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일도 많고 사건도 많은 시점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바쁘신데 강사까지 해주신 호재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MBC 보도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아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H군, 덕분에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참가했던 많은 청소년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이반 활력캠프의 성공을 기원하며 화이팅!

연재 인권운동과 나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스물 다섯 되던 해 겨울,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래 스물 일곱이 된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보인가. 적지 않은 나이에 여전히 나는 대학생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4학년임에 TOEIC 점수 올리기에 애전해야하며 취업,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미려터질 지경이어도 모자를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 일곱의 나는 올해 초 4월부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으로서 활동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포럼과 반전집회를 참가하며, 인권캠프를 준비하였으며 최근엔 MBC 방송국의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의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단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임을 믿고 손 놓고 기다린 결과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사장 형과 술을 마시면서, 동성애자라고 밝혀도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만큼의 현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사회인식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회생활을 하며 있어 전반적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삼가야 함을 명심하라는 사장 형의 충고를 좌시할 순 없었다.

그렇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벅대한 상황에 활동이니 운동이니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 비난받을 수도 있다. 나 또한 지금의 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결정지어져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 처음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다른 동성애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나만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즐기자 마음먹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급격히 빠른 시일 내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학교모임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게이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익혀갔다. 동갑내기인 그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지니고 그에 따라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둔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모습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명쾌히 해명되지 않는, 어떤 모순감에 학교모임과도 서서히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럼 왜? 알 수 없는 모순감은 무엇이었는가. 스스로를 이반이라 칭하며 일방적인 이성애자의 시각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어느새 소극적 순응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성적 소수자로서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성적 소수자내에서 편 가르기는 심각하다. 그렇기에 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찾게 되었다.

지금의 현실이 내 머릿속에 40대, 50대의 행복한 나를 그려내기엔 마땅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즐기면 그 뿐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한된 권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느끼게 되는 현실의 갑갑함과 상실감을 가져올 뿐이다. 인권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인식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란 당장의 현실에서 무언가를 억압받고 박탈당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이자 무기이기에 그들이 하는 운동은 당연하다는 일반적 이해는 잘못되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성적 정체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않는 여러 활동들을 지켜보았으며 함께 해왔다. 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럼에 내가 살아갈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하는 나는 계속해서 행복한 게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를 후원해주시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당신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으로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 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향한 억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정기적인 후원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은 동성애자들의 인권향상에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매월 초 재정의 투명한 보고를 newslette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을 기다립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사무기기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물품들이 많이 부족하고 낡은 상태입니다. 컴퓨터, 팩스 등 사무제품, 책상, 의자 등 사무제품 등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집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쓰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있으나 버리는 물품과 사무기기를 가증해 주십시오.

» 정기, 비정기후원 : 매월 1구좌 (10,000원) 이상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율(동인련)

» 동성애자인권연대 CMS 신청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약정액 (5천, 1만, 2만원, 기타)

이체일 (4일, 25일)을 lgbtpride@empa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S 인출금액은 시민사회복지기금으로 통장에 작성됩니다.

CMS 신청자분의 신상은 사무국 재정담당이 관리하며,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 후원문의 : 02_778_9982, lgbtpride@empal.com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 원칙

-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성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